

## “고용승계 성취까지 강고한 투쟁”

###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 경찰, 조합원 17명 폭력 연행

“4월 11일 고용승계를 포함한 교섭을 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공문을 보내 고용승계는 없다고 장난을 칩니다. 교섭 소식에 우리 투쟁의 마무리가 보이는 기대를 잠시 하기도 했지만, 사측의 기만적인 태도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박정혜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이 4월 17일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공장 앞에서 연 '고공농성 100일, 한국니토옵티칼 고용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소현숙, 박정혜 조합원의 고공농성이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금속노조가 이날 결의대회를 열어 “일본기업 니토가 100% 지분을 소유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일방 청산은 먹고 튀기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시작한 고공농성은 더 이상 길어질 수는 없다”라며 투쟁에 나섰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금속노조 총단결로 생존권을 사수하자”, “우리가 옵티칼이다, 반드시 승리하자”라고 외쳤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로 통해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투쟁이 100일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 악질 자본의 노조 탄압을 언제까지 저희가 묵과해야 할지 정말 화가 난다”라며 “금속노조는 한다면 한다, 질긴 놈이 이긴다는 정신으로 11명의 동지가 고용승계 되는 날까지 강고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서 실천 위원으로 활동하는 시경 스님은 연대사에서 “그동안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자본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고려하지 않았다. 일본 니토덴코 자본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위는 야만적이다”라며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 같은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현환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

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어제 고공농성 동지들과 함께한 100일 문화제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미친 사람이 있으면 그 노조는 깨지지 않는다.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싸움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 했

다”라며 “19만 금속노조 동지들이 그 한 사람이었기에 우리 11명의 조합원이 외롭지 않고 당당하게 고용승계를 외치며 민주노조의 투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한 1,500명의 조합원은 한국니토옵티칼 공장 울타리에 ‘먹튀사죄 고용승계’ 리본을 매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대표자들은 한국니토옵티칼에 면담요구를 했지만 경찰이 공장 입구를 막아섰다. 이날 면담요구 과정 속에서 경찰이 폭력으로 7명을 평택경찰서로 연행하고, 2명은 응급 후송됐다.

금속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친 후 정당한 면담요구를 가로막고 부당하게 연행 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평택경찰서로 갔다. 경찰은 불법집회라며 현장에서 10명을 짓눌러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